

더불어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	성명서		발신일 : 2026년 2월 9일 (월)
	공동위원장 백군기·김도균		
매수	1	별첨	없음
<문의>	대변인 유도진: 010-6260-7777 / 사무국장 국민석: 010-6314-1273		

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짓밟고 있는 '내란 행동대장' 김현태의 극우 막말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.

- '12.3 내란'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'내란 행동대장' 김현태 前 707특수임무단장이 군에서 파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유튜버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軍을 모욕하고 있습니다.
-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“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” 며 ‘참군인’ 흉내를 내더니, 계급장이 떨어지자마자 헌법재판소를 모욕하고 내란을 조작이라고 하면서, 그 동안 숨겨왔던 극우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-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 및 극우 집회 등을 통해 “내란은 조작” 이라는 무책임한 궤변을 늘어놓고, 심지어 자신의 내란 범죄를 “민주당의 기획” 이라 매도하며,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극우적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.
- 내란을 합리화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김현태의 언행은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행위입니다. 파면 이후 김현태가 보여주는 오만방자한 행태는 그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행정적 징계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역사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관용 없는 단죄의 시간입니다. 내란을 정당화하고 50만 장병들을 육보인 김현태가 가야 할 곳은 엄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뿐입니다.
- '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' 는 극우적 언행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軍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'내란 행동대장' 김현태를 강력히 규탄하며, 그의 불법적 행태를 엄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
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